

2016년 1학기

여성학

경상관 02310호

# 군사주의와 남성성 그리고 여성

\* **군사주의**: 한 국가 or 한 사회에서 전쟁 및 전쟁 준비를 위한 배려와 제도가 구체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국민생활의 다른 영역을 군사적 가치에 종속시키는 사상 내지는 행동양식(마루야마 마사오)

## \* 한국에서 군대의 의미

- i) 국가안보: 모든 가치의 최우선 & 어떤 논리든 제압할 수 있는 최고의 판단 기준 -> 군복무: 건강한 신체의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 가야 하는 의무로 규정
- ii) '국방의 의무를 다한 남성': 남성성에 대한 각종 규범과 정상성의 틀로 제도화/문화화
- iii) 국가 방어 의무의 의지는 근대적 민족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의 자발적 충성심의 핵심 -> 자발적 충성심: 시민권의 자격과 질을 결정 => 국방의무가 없는 여성을 '2등 시민화'  
+ 군대를 갈 수 없는 장애인등을 포함

- => 군대:- 국방의 역할을 넘어 정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지형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esp, 한국군대)
- 남성들만의 고유한 집단적 경험을 통해 여성과 차별화되는 남성 주체 생산에 기여-> 군대: 남성 주체 생산의 중요한 국가 기구

여기서의 주체 개인, 혹은 집단이  
행위를 할 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관자

ex)군대 내에서 훈련시 남성들에게  
“니네가 계집이나”등의 성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남성주체의 위계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되고있음

## 1) 호명이론(알튀세르)

- \* 호명: ‘호명’에 의해 개인을 주체로 만들고 개인은 호명당한 것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주체로 창조
  - 호명에 의해 창조되는 여/남성 주체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무의식 속에 내면화하는 존재
  - 군인으로 호명되는 주체= 남성->’군인= 남성성’의 젠더 정치학 작동=> 군사주의: 성별 분업으로 대비-> 양성간 불평등 권력관계 재생산=> 군사주의- 가부장제: 상호보강관계
- => 군대: 가부장제와 군사주의 결합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담당

## 2) 신체권력(푸코)

- \* 주체: 특정 권력 관계 내에서 구성되는 결과물-> 몸: 권력의 의지가 각인되는 거점=> 인간주체 형성: 순종적 몸과 권력을 스스로 강제하고 내면화하는 몸에 기반
- => 군대: 신체권력이 극대화 하는 곳- 군인의 신체: 국가 권력의 억압 대상 & 국가 권력을 재생산하는 주체로 기능 => 남성 군인의 몸: 여성과 차별화되는 남성 주체를 생산하는 국가, 군대, 가부장제 권력을 대변  
군인

## 3) 한국의 군대 생활과 남성 주체 형성

- \* 분단: 남성 군인= '정상적 남성성'-> 군사주의 정당화-> 남 vs 여 이분법 합리화 & 강화: 가부장제- 국가- 군대의 삼각고리 작동
- \* 군대 경험: 사회적 적응력을 키우는 필수 과정 & 표준화된 사회인을 만드는 것으로 간주

=> i) 군인만들기: 남성성 우월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  
과 과정으로 이루어짐=> 가부장적 남성 주체 형성의 근  
간

오늘날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한 집단·국가·문화가 다른 집단·국가·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패권

- ii) 한국의 분단과 군사독재: 군사주의적 남성성을 헤게모니  
적 남성성으로 고착->군대: 국방의 책임을 넘어 한국 사  
회의 남성 중심적 지배문화 재생산에 중요 기능 담당
- iii) 군대의 신체권력: 성별이분법 & 여성 비하를 통해 가부  
장적 신체권력 가시화
- iv) 한국의 군대 경험: 헤게모니적 남성성 & 표준화된 사회  
인의 모델로 획일화

## \* 징병제 관련한 논란 사례 분석

- i) 병역비리: 97년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기피 논란  
-> 불법 or 특권적 힘에 의한 면제자를 낳게 하는 사회부조리 문제로 이슈화
- ii) 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군가산점위헌 판결-남성들의 반발 & 소송당사자/위헌판결 옹호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식 대응-> 군필 남성의 희생에 대한 사회의 보상 문제로 부각

### 1) 군가산점 논쟁의 성별논리

- i) **군가산점제 도입 배경:** 이회창 아들 병역기피 논란 당시, 98년 5월 제대군인 보상정책 발표- 군가산점제: 5급직 1차 국가고시에 군필자 3-5%(2년 이내 복무 3%, 2년 이상 복무 5%) 가산점 부여 & 20인 이상 사업체 군필자 우대 정책을 강제조항으로 전환-> 공공 부문/민간 부문 전 영역에 걸쳐 '채용, 임금, 승진'의 삼중 혜택을 군필자에게 부여한다는 의미-> 논란 해결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등이 처한 현실은 염두에 두지 않음

## ii) 군가산점제 적용 결과 분석

- 98년 7급 일반행정직 채용시험: 99명 중 가산점 받은 제대군인 72명(72.7%) / 비제대군인 3명(3.3%)에 불과 / 98년 7급 검찰사무직 15명 합격자 중 비가산점자는 1명 뿐
- 99년 9월1일 기준, 전체 공무원 중 장애인 비율 0.0041%에 불과 -> 장애인 비율을 낮았던 이유를 군가산점제로 봄(김정열)

iii) 군가산점 위헌 판결 후에도 옹호논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 국가에 대한 희생뿐만 아니라 군대 가는 남자는 가지 않는 남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의 확산

=> 징병제와 관련한 남성 희생 or 약자 논리: 성별화되어 진행-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 여자'라는 이분법만 등장 (배은경)

군가산점제 자체의 목적은 분명히 이성적이다  
하지만, 군가산점이 사회적인 다른 약자를 차별하는 부분으로  
확산된다면 그런식으로 진행되면 안될 것이다.

개인적인의견

1. 군가산점제 유지

but, 징병의 의무를 여성에게도 확대

2. 군가산점제 폐지

>>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변경

#### iv) 군가산점 헌법 소원자: 여성+장애인 남성

- but, 여성들에게만 표적=> 장애인: 누구나 공감하는 사회적 약자로서, 남성 병역의무와 관련된 희생/사회적 약자 논리를 설득력 있게 유지할 수 없는 대상 & 분노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룹이기 때문=> 여성은 희생도 하지 않고 평등만 원하는 집단으로 낙인/장애인들은 논란의 과정에서 또 소외되면서 이중의 소외 과정 겪음



남자들만의 연대를 통해서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타자(장애인, 여성)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 \* 남성 연대 대신 타자와의 연대를

- 남성들이 자신의 남성성을 성찰하고 여성들과 연대할 때, 군사주의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 가능
- 병역기피 논쟁에서 벗어나서 병역의무의 강제적 평등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개인의 다양한 사상/의지가 인정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방적 희생 논리/약자 논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숙고 필요
- 가부장제 + 국가주의 + 군사주의 전통/문화를 재생산하는 군대에 대한 성찰과 그 역할 해소를 위한 근본적 변혁 필요

여성주의 관점에서 봤을때 군사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당연하게도 성별분리, 위계화하기 때문이다.

군사주의와 가부장제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위치를 가지고있다